

마이클 하빈 박사,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적 이질층을 위한 사회 정의, 3부,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 2024 Michael Harbi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적 이상치에 대한 사회 정의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이클 하빈 박사입니다. 이것은 3부입니다: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샬롬, 저는 테일러 대학교의 마이클 하빈이고,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이상치에 대한 사회 정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은 세 번째 부분으로,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 연구를 하나님께서 토라, 오경,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시기인 후기 청동기 시대로 불리는 시기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살펴보면서 시작했습니다. 레위기에 대한 저의 다가올 해설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의 내용을 주신 것은 새로 창조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민족이 제사장 왕국으로 통합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열 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 때까지 지켜왔던 개인 및 가족 예배를 대체할 공동 예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제가 국가의 사회적 구조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나이에서 국가에 약속하신 땅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는 따르면 힘든 시기에 국가적, 사회적 구조를 보존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낼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이것들을 사회 정의라고 총칭합니다 . 이 용어는 구약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그 개념은 토라나 하나님 주신 가르침에 짜넣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살펴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국가적 실패와 그 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 나라는 이 지도에서와 매우 비슷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수아에 따르면, 우리는 그들이 주로 도보로 이동하는 문화권에서 보통 몇 마일 떨어진 수백 개의 장소에 정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사소통은 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사사 시대와 왕국 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수백 개의 작은 공동체로 이루어진 집단이었으며, 일부는 공통 조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공통 경험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결과 유일신에 대한 공통 예배 체계와 사회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 가르침이 생겨났습니다.

1부에서는 단일 커뮤니티가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 구조가 커뮤니티 내에서 만들어낸 사회적 규범 중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 시리즈에서 우리의 목표는 그 사회 구조에서 원칙을 도출하여 오늘날의 문화를 사회 정의에 대한 지침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의 15년 전에 구약성서에서 사회 정의라는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용어에 따른 사회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 따르면, 사회 정의라는 용어는 비교적 현대적인 용어로, 이탈리아 사제 루이지 타파렐리 가 만든 이탈리아어 구절에서 번역된 것으로 보입니다. 1840년, 다젤리오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마이클 노박도 이 평가에 동의하며, 두 사람 모두 그 용어가 느슨하게 정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박이 2009년에 한 강의에서 그는 이 문구가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다섯 가지 다른 방식을 제시합니다. 원래 아이디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감각을 현대적 형태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박이
집어든 이러한 개별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하나는 분배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나오는 다소 일반적인 관점으로, 사회
정의는 사회의 장단점을 분배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노박은 분배라는
용어에 이 용어를 추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분배를 하는 눈에
보이는 손과 같은 일종의 인간 외의 힘을 추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정의를 제정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인간의 기관, 일반적으로 정부로 간주됩니다.

평등. 이것은 장단점이라는 개념을 다룹니다. 이 관점은 평등이 좋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노박은 이 관점이 실제로
평등이라는 개념을 왜곡하여 공정성, 형평성 또는 동등한 부분에 대한
공평성과 분리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다섯
살이고 식욕이 거의 없는 한 아이와 그의 동생이 십 대 축구 선수일 때
누가 가장 큰 케이크 조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쟁할 때 우리가 보는
그림입니다.

노박은 공평한 것이란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비례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공동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공동선이라는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용어이며, 가치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노박은 공동선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사람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합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보통 고대 세계에서, 이것은 가장 현명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 했습니다. 현대 국가의 부상과 함께 현대 통치 하에서, 노박은 이
권한이 관료적 국가에 의해 선점되었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한 개인이 아니라, 책임이 없는 관료주의 조직입니다. 그는 공동의
이익이 실제로는 국가적 통제와 전체주의에 대한 변명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 진보적 의제. 노박은 진보적 의제가 산업 시대 초기에 유럽이
농업 사회에서 붐비는 상업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공장은 아니었지만, 도시로의 대량 이주와 산업 중심지에서의 산업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진보적 의제는 일하는 사람들을 농장에서 떼어놓음으로써 문화적 전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 음식을 재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식량을 사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농부와 공장 노동자 모두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했고, 그들의 근무 조건과 생활 조건의 본질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농업 사회에서 일반적인 농부는 집과 먹을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럽 사회의 특성상 그들은 경작하는 땅이나 그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임금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직장 근처에 살았지만, 생활 조건은 훨씬 더 혼잡하고 비위생적이었습니다. 진보적 의제의 아이디어는 타락한 인간이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발생한 일부 잘못을 바로잡거나 교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연민. 연민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표면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의 캐치프레이즈가 된 듯합니다. 여기에는 거의 모든 현대 혁명이 포함됩니다.

노박은 인용문에서, 나치, 공산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 정권을 정당화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독재자들이 지난 150년 동안 연민의 이름으로 저지른 죄가 역사상 다른 어떤 세력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인용문 끝. 이러한 것들 중 가장 흔한 개념은 분배인 듯합니다.

노박은 사회의 장단점 분포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사용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인기 있는 웹 리소스, 웹 리소스 위키피디아를 포함하여 발견되는 의미입니다. 이 정의로 사회 정의에 대한 기사를 시작합니다.

사회 정의는 사회 내에서 부, 기회, 특권의 분배 측면에서의 정의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곳의 정의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옹호하는 조직에 대한 다양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는 이와 같은 정의를 발견했습니다.

2015년 전국 사회복지사 협회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와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래치아 주립 대학의 매튜 로빈슨이 이끄는 사회 정의 및 인권 사무국은 비슷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공평한 대우와 인권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역 사회 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 간략한 정의에 앞서 더 광범위한 논의입니다. 내가 들었거나 본 다른 많은 정의와 마찬가지로, 보통 가정했던 이 세 가지 정의는 모두 권리와 기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한 나의 즉각적인 반응은 긍정입니다.

결국, 독립 선언서에 표현된 미국의 기본적인 기초 전제 중 하나는 모든 개인이 생명, 자유, 행복 추구를 포함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선, 권리는 무엇을 구성하는가?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정의하는 권위자 또는 사람은 무엇인가? 토마스 제퍼슨은 이러한 권리가 창조주에 의해 부여되었다고 말합니다.

제퍼슨은 대부분의 건국의 아버지들처럼 유대-기독교적 관점을 표명했는데, 이는 실제로 이 연구에서 살펴볼 구약성서 본문에서 직접 파생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권리가 신이 창조한 세상에 내재되어 있다는 데 동의할 것이므로 이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아닌 사람, 특히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삶이 단순히 시간과 우연의 산물이고, 삶의 기초가 적자생존이라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모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과 경쟁한다는 기본 전제와 모순됩니다. 진화적 틀 안에서는 권리가 없습니다. 셋째, 우리의 권리가 충돌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출처를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또 다른 질문은, 내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 존 로크는 로빈슨의 공정한 할당 개념을 개발했는데, 우리는 애플래치아 주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로크는 자신의 권리를 그가 공정한 몫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그는 이 개념을 도토리를 모으는 비유로 설명하고, 사람의 공정한 몫은 그가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인용문, 상하기 전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그의 몫보다 더 많다, 인용문 끝.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서 상할 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에 따르면, 도토리의 공정한 몫에 대한 로크의 명제는 실제로는 부패하는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비부패성 품목의 공정한 몫을 결정하는지 말하지 않거나 언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도토리나 같은 부패성 상품의 경우에도 나무가 숲에 있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즉, 그것들은 지역 사회 자원입니다. 만약 그 참나무가 내 뒷마당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 나무가 너무 많은 도토리를 생산해서 상하기 전에 사용할 수 없다면, 나는 내 나무를 사용할 권리를 잃은 걸까요? 나는 더 이상 사생활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걸까요? 그리고 그 참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이웃의 마당을 덮고, 이웃의 정원에 그늘을 만들어 토마토가 자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더 복잡하게 말하자면, 내 참나무의 도토리가 이웃의 마당에 떨어지면 어떨까요? 논의하거나 심지어 논쟁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분명한 점은 내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희생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기회란 무엇일까요? 사회 정의에 대한 많은 정의에서 기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아가 평등에 대한 장벽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주어진 활동이나 방향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개념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다른 모든 자격을 충족할 때 인종, 성별 또는 개인적 신념과 같은 임의적 또는 인위적인 장벽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인위적인 장벽과 실제 장벽 사이에는 미묘한 경계선이 있으며, 오늘날에는 그 차이에 대한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삶의 많은 측면은 그 자체로 장벽이 아니지만, 우리의 기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고 어떻게 우리를 키우셨는지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수,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다니는 학교, 우리에게 신이 주신 능력, 우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우리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제약 때문에 원하는 기회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12에서 예수님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다양한 환관에 대해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태에서 그렇게 태어난 환관도 있고, 사람에 의해 환관이 된 환관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환관이 된 환관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요점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기로 선택하지만, 불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성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고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계를 넘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없애는 다양한 사고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 좌절을 겪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했듯이, 경주는 빠른 자에게 있지 않고, 싸움은 용사에게 있지 않으며, 빵은 지혜로운 자에게 있지 않고, 재물은 분별력 있는 자에게 있지 않고, 은총은 능력 있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시간 과 우연이 그들을 모두

따라잡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11 .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잡는다 하더라도, 간과되는 또 다른 요소는 실패의 문제입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기회 중 하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Small Business Association에 따르면, 신규 사업의 약 30%가 첫해에 실패하고, 약 절반이 처음 5년 동안 실패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고의 결과이지만, 대부분은 준비와 자원의 범주에 속하는 듯합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실제로 제품에 대한 실행 가능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기업가가 새로운 사업의 일반적으로 느린 시작을 스스로 견뎌낼 때까지 설정하고 견뎌내는 데 드는 비용을 처리할 충분한 재정 자원을 개발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 즉 대학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실패율은 사실상 기업의 실패율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에 입학한 모든 학생의 거의 절반이 6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준비 또는 리소스라는 광범위한 범주에 속합니다. 한편으로는 학생이 대학 과제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리소스가 부족하고 어떤 경우에는 재정적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준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대개 욕망이나 동기의 부족이며, 능력의 문제입니다. 많은 것들이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 중 하나는 실패가 종종 도덕성 문제에서 실수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성격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매춘부에게 청혼한 혐의로 직장을 잃은

보안관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도덕적 문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캐틀린의 젊은 남녀들은 마약, 알코올, 불법적인 섹스 또는 다양한 부정 행위에 대한 실험으로 인해 성공에서 영구히 벗어났거나 심지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이러한 사회 정의에 대한 정의와 유사한 많은 다른 정의가 제가 말하는 단축된 사회 정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의는 공정한 몫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몫을 정의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론가들은 공정한 몫 개념의 우선 순위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정한 몫이 무엇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거의 항상 권리와 함께 사용됩니다. 즉, 사회에 있는 것에 대한 혜택을 다룹니다.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이론과 문화적 적용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제 삶에서도 이 문제를 탐구하기 시작한 이래로 제가 정기적으로 써름해 온 것입니다.

내 공정한 몫은 얼마인가? 비교의 기준은 무엇인가? 실제로 좋은 정의는 없고, 내 공정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도 없다.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듯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대부분은 질투와 탐욕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한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시도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분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의가 모호합니다. 우리의 정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상품을 어떻게 다루나요? 분배는 수동적으로나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모호하며, 종종 필요와 욕구를 혼동합니다. 분배의 수동적 정의나 사용은 무작위 분산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탄총 폭발에서 펠릿의 패턴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의 경우, 그것은 어떤 사람이 소유한 것이 단순히 우연의 문제인 이점이나 단점의 분산을 반영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에게 주어지거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장애 또는 사람이 태어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 분배의 사용은 사람이 인생을 통해 받는 이점이나 불이익이 출생 상황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의도적이든 우연적이든 사회적 힘의 직접적인 힘일 수 있습니다. 사회 정의 문헌은 일반적으로 후자의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적 힘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노박이 설명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배를 사회나 문화가 상품과 서비스를 분배하는 과정으로 보고, 인간 외의 힘이나 눈에 보이는 손이 일을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매우 강력한 인간적 기관, 보통 국가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모두 요인이지만, 현대적 논의는 일반적으로 단점에 초점을 맞추었고, 사회 정의 노력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전의 분산을 의도적으로 상쇄하고 단점을 인위적으로 교정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원과 관계없이 이점을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힘을 사용하려는 노골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축된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얻어야 할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주어야 할 것은 제외합니다.

현대 정의가 축소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배 문제의 기초입니다. 사회 정의에 대한 교과서 서문에서 Matthew Clayton과 Andrew Williams는 장단점을 모두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들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사회 정의의 문제는 결정이 다른 개인이나 그룹 간의 혜택과 부담의 분배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고 말하며, 저는 이탤릭체를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 정의에는 부, 기회,

특권뿐만 아니라 부의 생산, 관련 위험, 사회 내의 책임도 포함됩니다. 이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사회 정의의 기본 개념이 두 가지 질문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모든 개인이 정기적으로 묻고 강조해서 물어야 합니다.

첫째, 내가 공정한 몫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혜택입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공정한 짐, 부담을 지고 있는가? 너무나 자주, 두 번째 질문은 완전히 간과됩니다. 역사적으로 정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 지난 200년 전까지 역사를 통틀어 역사적으로 함께 제기되어 온 듯합니다. 즉, 공정한 몫은 지고 있는 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48에 나와 있습니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프랑스어로 *noblesse oblige*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칼 마르크스조차도 공산주의를 발전시키면서 한때 이런 관점을 견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저서, 저작, 그리고 고타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에서 그의 고전적인 문구는, 그가 문듯이, 공정한 분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결국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의 답변은 공정한 몫을 평등한 노동의 문제와 모든 사람의 공정한 부담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연결합니다.

게다가, 내가 아내에게 내 공정한 몫이 얼마인지 묻기 시작했을 때, 내 관점은 필요와 욕망을 혼동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농담을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내가 "파이 한 조각이 필요해"라는 표현을 쓸 때 말입니다. 아내는 나를 보고, "필요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한정해야 했나요? 마르크스는 그의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이 이상은 그가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라고 부르는 것이 발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일 때만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관리자는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동안 평등한 부분과 공동 소유라는 개념이 표준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방정식의 능력 측면, 제 공정한 부담을 무시합니다. 다시 한 번, 단축된 관점입니다.

이 경우, 소위 진보적 관점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사유재산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탐욕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많은 대중의 억압의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매우 순진한 관점에 근거합니다.

성경적 관점을 취하든 진화적 관점을 취하든, 그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성경적 관점은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갈등하는 자기중심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적 관점은 인간이 가장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 싸우고 생존하며, 그 과정에서 동료 인간과 갈등하는 자기중심적 본성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단지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성의 강력한 표현일 뿐입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은 부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우리가 '나의 것'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분명해진다. 마르크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공동 소유를 주장하지만, 즉 아무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불행히도 현실은 속담처럼, 모든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면 아무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아무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공동 소유와 사유 재산의 상실은 실제로 공정한 몫의 상실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 일하려는 동기를 없애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첫 정착민인 청교도 조상들이 힘들게 얻은 교훈입니다.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이 처음 정착되었을 때, 그것은 공통 과정과 조건 측면에서 쇠퇴했습니다.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플리머스 재단에서 설명한 대로, 그들은 재산을 빼앗고 공동체를 연방으로 가져오면 마치 신보다 더 현명한 것처럼 행복하고 번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굶었습니다. 그들이 이 구조를 버리고 각 가족에게 땅을 주었을 때, 식민지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우 근면하게 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바튼이 그의 책, *The American Story, The Beginnings*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힘든 교훈은 우리나라의 건국에 중요했습니다. 마르크스와 대조적으로, 존 로크는 노동의 산물로서의 사유재산은 노동의 산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르크스처럼, 로크는 탐욕의 문제를 인식하지만 다른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그는 한계를 제안합니다. 그는 내 몫은 내가 상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내 몫보다 더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말이지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지점을 살펴보면,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입니다. 누군가의 노동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토리 모으는 비유를 사용하여, 로크는 잉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숲이나 비슷한 출처에서 자라는 나무에만 적용되므로, 이 비유는 노동이 여러 상품을 생산하는 복잡한 경제 시스템으로 쉽게 변환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도토리를 모을 때, 충분히 모이면 모으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주워 올릴 수 있는 나무 아래에 두거나, 다람쥐가 모으거나, 새로운 참나무로 자라거나, 그냥 썩을 것입니다. 복잡한 경제 시스템에서는 노동을 쉽게 멈출 수 없습니다.

로크는 그의 설명에서 두 가지 다른 요소를 놓친다. 첫째, 그는 장기적으로... 어디 보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잉여, 계절 상품의 장기적 공급을 제공하기 위한 보존을 허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요소는 도토리를 모으는 사람이 실제로 도토리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참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며, 시인이 말했듯이, 오직 신만이 나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외삽하면, 신이 근원을 주는 사람이고, 우리가 구약성서의 사회 정의 개념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첫 번째 전제가 될 것입니다. 첫째, 신은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이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은 우리가 그분이 창조하신 것의 청지기 또는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살펴보면 이 논의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8~30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개인으로만 구성된 새로 창조된 인류가 번성하여 동료 관리자들로 지구를 가득 채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단체적으로 그들은 지구 전체를 정복해야 했습니다. 여기의 히브리어 단어는 인류가 세상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창세기 2:28에서 이 원래 부부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정원에 두어졌다는 것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원은 어떻게든 창조된 세상의 나머지 부분과 차별화된 매우 제한된 지리적 위치였을 것입니다. 도보로 이동하는 두 사람이라는 제한을 감안할 때, 저는 그것이 세상에 비하면 매우 작았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좋은 세상을 세계적인 정원으로 바꾸면서 공동 창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자산의 관리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 타락 후, 시나이에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는 어떻게든 이 과정을

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서 제사장 왕국, 다른 국가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청지기 또는 관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강조되는 점은 개별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작한 땅, 그들이 소유한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각 대가족은 관리할 토지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만 소유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각자가 삶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기업과 개인의 사회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사회적 불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불의의 발전을 막기 위해 고안된 지침을 제공하는데, 토지에 들어가는 각 개인에게 농사를 지을 준비가 된 토지가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즉, 이사를 가서 즉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 가족이 받은 토지의 양은 그들을 부양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대가족이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적당한 양이었고,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레위기에 나오는 토라는 공동체에서 사는 원칙을 제공하는데, 그것을 따르면 사회적 불의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확실히 완화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텍스트는 이러한 원칙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토라는 또한 당시의 사회 및 경제 시스템에 특별히 얽매인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고안된 상당한 시정적 측면을 제공했습니다. 토라가 그 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이 내가 공정한 짐을 따르는가라는 질문을 강조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구약성서는 이스라엘 민족 내의 개인, 사실 우리는 모든 인류라고 말할 수 있지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밝힙니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태어난 가족의 지위, 또는 타고난 능력의 측면에서 말입니다. 룰스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이것들은 사회적 복권, 즉 나의 가족 지위나, 자연적 복권, 즉 나의 타고난 능력의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을 무작위적인 복권 개념으로 보는 대신, 구약은 시편 139편과 이사야 44장에서와 같이 언급하면서 주권적이고 전능한 신과 이를 연결합니다. 따라서 지위나 능력의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 고안된 지침을 제시하는 대신, 구약의 기준은 기대치가 다를 경우 개인에게 미치는 부담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본질적으로 기대치는 개인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능력이나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권 직분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사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직분은 레위 지파에 국한되었고, 이는 가족 지위의 문제였으며, 성막과 그 모든 장비를 돌보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1장과 민수기 8장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레위인도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맡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과 레위기 8장은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제사장직은 아론의 남성 후손에게만 국한되었다고 암시하는 듯합니다. 슬프게도, 코핫 자손의 레위인인 코라는 매우 중요한 직책인 장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지만,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직에 참여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의 반역으로 인해 그와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땅이 그들을 산 채로 삼켜버렸을 때 죽었습니다. 또한 사제들은 특정한 더 높은 생활 기준과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제들은 이혼한 여성이나 과부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제들은 안식일을 쉬는 날로 삼기보다는 안식일에 일해야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할 때, 달란트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각자의 능력에 따른 말씀은 유대인 청중에게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능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신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은 신이 나에게 준 것이고, 신의 기대는 내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가 있는 문화권 내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매우 인기 없는 것으로, 내가 원한다면 잉태 시 DNA에 의해 결정된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조차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두 번째 관찰은 구약성경에서 성공과 실패는 기업과 개인의 의미로 모두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개인의 성공은 두 가지 항목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적절한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은 이 점에서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인 사울과 다윗을 개별적으로 대조합니다.

사울은 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 결과 신이 그에게 준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기 실패 중 하나는 골리앗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이런 종류의 갈등에서 국가를 대표할 것으로 기대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시간을 끌다가 청년 다윗이 그의 자리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울은 실패자로 끝났고 전장에서 자살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중대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집니다.

기업적으로, 구약성경의 관점은 만약 국가의 모든 사람이 실제로 신을 신뢰하고, 기업적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일과 기업적 일을 한다면, 신이 국가를 기업적으로 축복하고, 각 개인이 그 기업적 축복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행운이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드워킨의 생각과 상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구약성경이 또한 타락한 세상을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세상에서는 결함이 있고 죄 많은 인간이 어려움을 겪고 죄에 대한 단순한 관점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즉, 모든 실패가 개인의 실수의 직접적인 결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욕기에서 이것을 매우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훈계에 따라 의로운 사람이었던 욕은 헤아릴 수 없는 상실에 직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문제를 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폭풍이 대혼란을 일으키고, 도구가 부러지고, 동물이 죽고, 사람들이 아프거나 다치고, 이 모든 일이 가장 불편한 시기에 일어나는 듯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번영하지 못하고, 전도서에서 말했듯이 시간과 우연이 그들을 모두 압도합니다. 이 때문에 구약성서의 사회 정의 개념은 모든 개인이 공정한 짐을 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여 처방적 정의를 강조하지만, 일이 발생하고 각 개인이 자신의 노동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다가 그 문제에 대한 좋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토라는 우리가 안전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데, 이는 삶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을 겪는 개인을 잡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사회 구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이질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안전망과 안전선 중 다수가 토라의 구체적인 규정에 짜여 있지만, 우리는 4부에서 이를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적 이상치에 대한 사회 정의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이클 하빈 박사입니다. 이것은 3부: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